



오순제 | 한국고대사연구소 소장,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객원교수
(osj6680@hanmail.net)

하천의 역사와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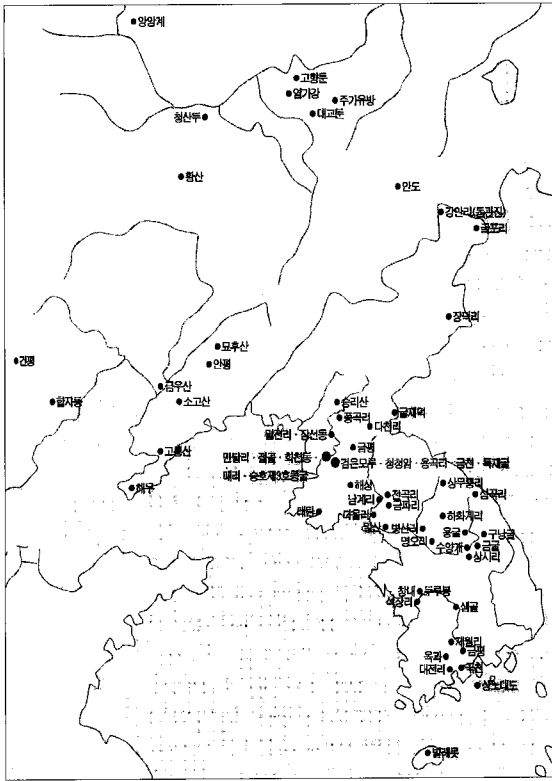
1. 하천에 깃들인 역사와 문화의 기본개념

인류는 구석기와 신석기시대 이래로부터 강과 하천 또는 해안가에서 생활을 영위해 왔다. 남한 내에서 최초로 발굴된 석장리의 구석기유적이 금강 변에 있는 것과 한탄강가에 있는 전곡리의 구석기시대의 유적 및 한강가에 있는 암사동의 신석기시대의 주거지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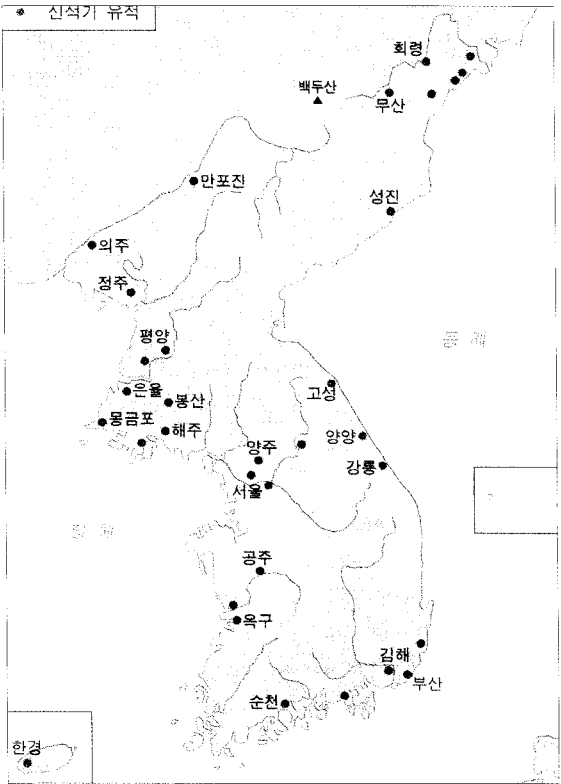
특히 고대국가가 생기면서 왕도가 큰 강을 중심으로 형성 되었는데, 4대 문명의 발생지인 이집트는 나일강,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인도는 인더스강, 중국은

황하강을 중심으로 고대문명을 싹틔워 왔다.

우리나라는 BC 4000년전의 환웅시대의 고대문명인 홍산(紅山)문명이 서요하(西遼河)를 중심으로, 그리고 고조선(古朝鮮)은 요하를 중심으로, 마한(馬韓)은 대동강과 한강, 진한(辰韓)과 변한(弁韓)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문화를 생성해 나갔다. 특히 고대왕국인 고구려(高句麗)는 혼강, 압록강과 대동강, 백제(百濟)는 한강과 금강, 신라(新羅)는 형산강의 지류인 북천, 서천과 남천, 6개의 가야(加耶)연맹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국가를 형성하여왔다. 그 외에도 고려(高麗)는 예성강, 조선(朝鮮)은 한강을 중심으로 왕도를 마련하였다.



〈그림 1〉 구석기시대 유적의 분포



〈그림 2〉 신석기시대 유적의 분포

이것은 강이 자연경관과 농업용수로 뿐만 아니라 물자를 수송하던 교통로인 수로나 운하¹⁾로 이용되었으며 적의 도강을 저지할 수 있는 해자(壕字)로서의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즉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하천은 우리 인간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우리의 역사상 존재하는 하천들 중에서도 마한의 왕도 목지국(目支國) 터인 안성군 양성면 성하리토성 부근에는 한천(漢川), 백제의 하북위례성(河北慰禮城)인 방학동토성 부근에도 한천이 있으며,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인 하남시 교산동토성 부근에는 한수(漢水)라 불렸던 한강이 자리 잡고 있다.

왕도의 곁에 흐르는 강을 한천, 한수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다. 즉 이것은 하늘의 옥황상제가 계시는 자미원(紫薇原)과 그 부근에 흐르는 '하늘의 강'인 은하수를 천한수(天漢水)라고 부르던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왕의 거처였던 지상의 왕궁은 천상의 왕궁을 형상화한

것이고, 그 옆에는 하늘에서와 같이 반드시 천한수를 상징하는 큰물을 뜻하는 한수나 한천이 존재해왔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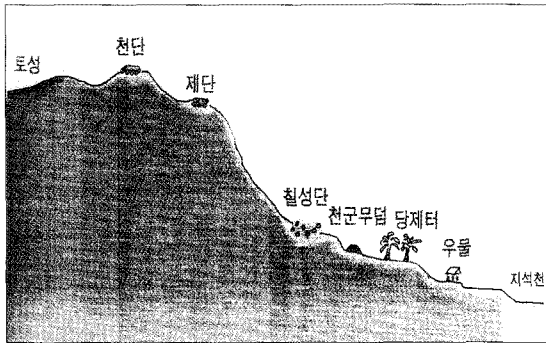
이와 아울러 인더스 문명의 하랍과, 모헨조다로 등의 유적들을 보면 도시의 핵심부에는 신전(神殿)이 왕궁과 함께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신전의 중심부에는 신관(神官)이 하늘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목욕재계를 하였던 목욕탕이 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성스러운 천한수의 물을 매우 중요시 여겼던 것이며 우리의 풍속에도 정한수²⁾를 떠서 치성이나 혼례를 지냈던 사실과 같다.

그리고 고대도시의 발생은 우물을 중심으로 싹트기 시작하였기에 시장(市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민족의 첫 번째 도시였던 신시(神市) 또한 백두산의 신단수(神檀水) 아래의 우물을 중심으로 나타난 도시이다. 즉 생명수였던 우물

1) 고구려의 도성인 평양성의 외성 안쪽에서 운하유적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사백제문화연구회)의 조사에 의하면 하남위례성으로 비정되고 있는 하남시 교산동토성의 옆에 흐르는 덕동천에서도 운하의 유적이 나타나고 있다. (한중심, '위례성백제사 II', 집문당, 2004)
2) 井漢水, 井華水

가에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촌락을 이루게 되고 이곳에서 시장(市場)이 형성되어 물물교환과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졌으며 신앙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필자와 백제문화연구회 한종섭 회장과 공동조사한 화순 지석천변에서 발견된 마한시대의 소도(蘇塗) 별읍에서 잘 드러나 있다. 이곳은 우물—당산나무—천군의 무덤—제단—천단으로 북방향으로 일직선을 이루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물을 가장쪽에 자리 잡아 강 건너의 왕궁지로 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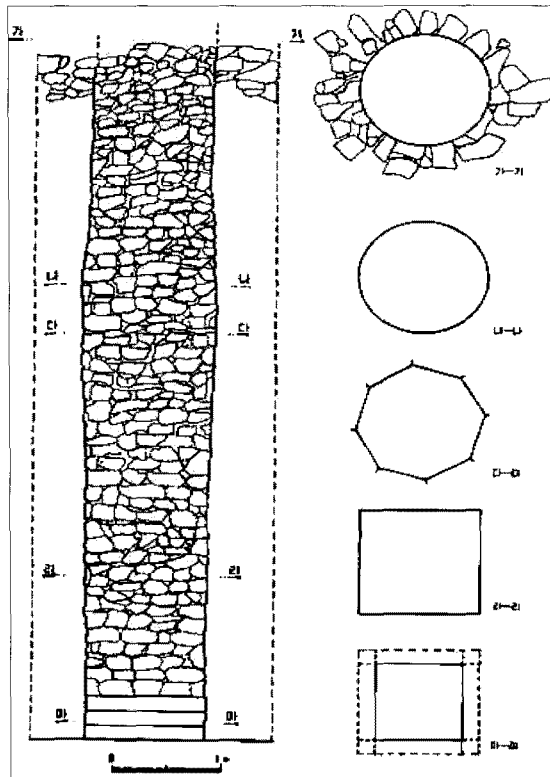
〈그림 3〉 삼인산(三印山)의 소도 별읍 남북방향의 유적배치 개념도

지석천을 사이에 두고 북쪽에는 왕궁과 궁성으로 산자의 영역, 남쪽에는 소도와 고인돌군으로 죽은자의 영역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집트의 룩소르에서와 같은데, 나일강을 중심으로 동쪽은 신전과 왕궁이 있는 산자의 도시, 서쪽은 무덤만 존재하는 죽은자의 도시로 각각 건설하여 놓았다.

더구나 신라의 도읍이었던 경주에 있는 첨성대(瞻星臺)는 고대우물이 땅으로 솟아오른 형상을 하고 있으며 고대도시의 중심인 배푼자리에 자리잡고 있다. 이것은 그 정상부의 우물 정(井)자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우물이 고대인들에게는 생명의 원천인 동시에 우주와 땅을 연결해주는 신성한 존재로 '우주 우물'이라는 신라인의 관념이 반영된 것으로, 이곳에 하늘이 들어와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며 그러하기에 천정(天井)이라는 말이 생긴 것이다. 그 옆에 있는 분황사(芬皇寺)의 팔각³⁾우물 안에는 호국룡(護國

3) 우리나라에서는 발주령, 세영동검, 정동거울 등 청동기 신앙일괄유물이 나온 곳으로는 이곳이 유일하다.

4) 8각은 신라 경주의 나정, 백제의 하남시 아성산성과 이천 설봉산성, 순천 고탄산성과 일본 구마모토의 기구쵸성, 고구려 집안의 환도산성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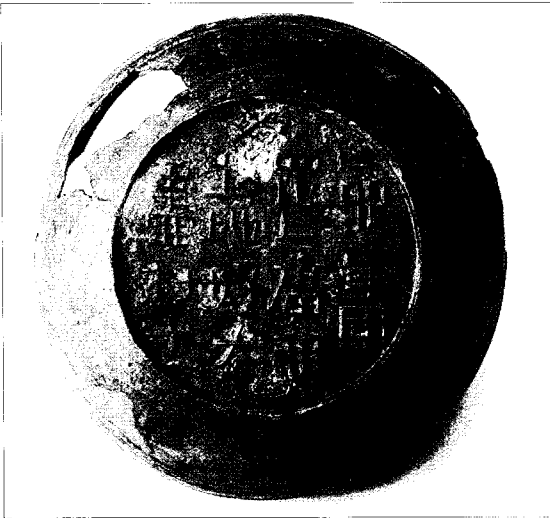


〈그림 4〉 평양의 고산동 고구려시대 우물



〈그림 5〉 솟아오른 우물을 형상화한 첨성대

龍) 세 마리가 있었는데 원성왕 11년(795)에 중국의 사신이 고기로 만들어 감추어 가져가려다 들켜 돌려주었다는 사실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6) 경주의 호우총에서 나온 호우

최근 백제의 풍납토성에서도 나무를 우물 정(井)자로 틀을 짜서 만든 우물이 발굴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최인호의 '왕도의 비밀'이라는 소설에도 나오듯이 백제의 이성산성뿐만 아니라 몽촌토성, 구의동 보루, 아차산 보루 등 고구려와 관련된 많은 유적들과 신라 경주의 호우총에서 나온 광개토대왕에게 제사를 드렸던 유물인 호우의 밑바닥에도 우물 정자가 새겨진 토기들이 출토되고 있어 이것이 하늘을 담고 있는 광개토대왕의 이름과 함께 우물 정자가 새겨져있다.⁵⁾ 이것은 '하늘의 연못(샘)'인 백두산 천지(天池)를 상징하는 신앙적인 부호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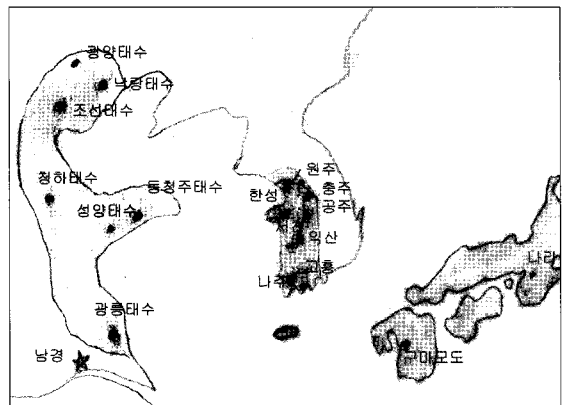
2. 하천과 바다를 통한 우리민족의 역사적 활동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반도국가로 지중해 세계를 제패함으로써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그리스, 로마와 같은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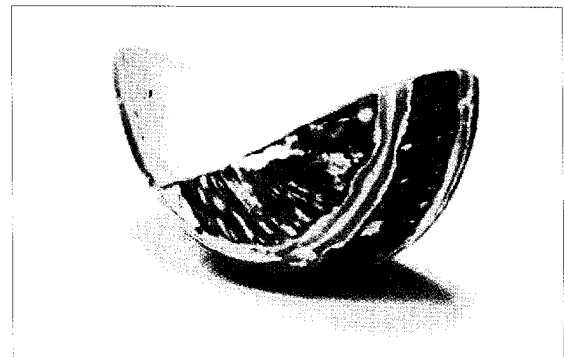
더구나 우리 민족의 고대문화가 자리 잡았던 요하, 압록강, 대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형산강 등이 바다로 바로 연결되어 있어 하천과 바다를 통하여 중국과 일본 등으

로 진출하였다.

그 중에서도 변한과 가야는 바다를 통해 일본으로 진출하여 BC 300-AD 3세기에 야요이(彌生)문화를 꽃피웠다. 백제는 바다를 통해 중국에 진출하여 요서, 산동성, 절강성 등에 식민지를 건설하였고 일본을 점령하여 아스카(飛鳥)문화를 건설하여 동아시아의 해양강국으로 떠올랐다. 특히 한성백제시대의 금동관이나 금동신발이 나오는 지역을 살펴보면 남한강 상류 원주의 법천리 고분, 금강가에 자리잡은 공주의 수춘리 고분, 대석천이 흐르는 서산의 부장리 고분, 영산강가의 나주 신춘리 고분과 북암리 고분, 남해의 고성 안동고분 등으로 강과 바닷가에 자리잡고 있어 중국이나 일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고 왕족이나 귀족들을 파견하여 담로(擔魯)를 설치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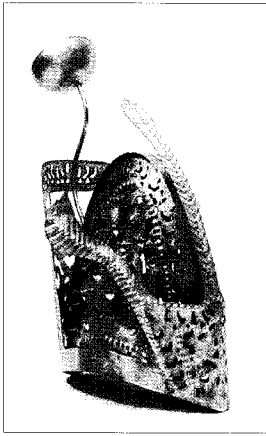


(그림 7) 백제의 담로의 중국, 일본의 진출지점



(그림 8) 대가야의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서 나온 보배조개로 만든 국자

5) 이곳에는 '물요년국강상광개토지호태왕호우십(乙卯年國上廣開土地好太王臺杆)'이라고 새겨져 있는데 '국강상광개토지호태왕'은 광개토대왕을 나타내고 '물요년'은 광개토대왕 사후 3년 뒤인 415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 9〉 부정리 고분의 금동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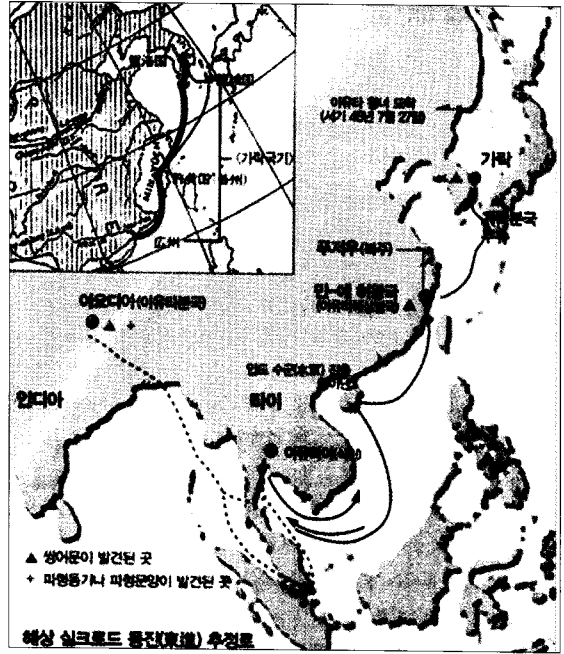
〈그림 10〉 후나야마 고분 금동관

더구나 일본의 구마모도의 후나야마(船山) 고분의 금동관과 나라의 후지노끼(藤ノ木) 고분의 금동관도 백제가 설치한 담로의 하나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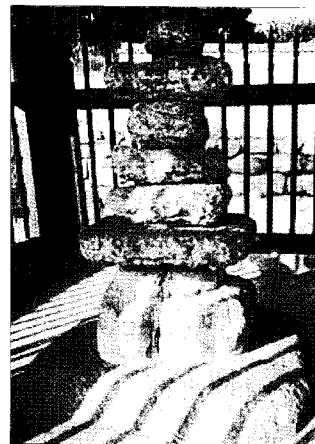
춘추전국시대 BC 7세기의 제(濟)나라의 재상이었던 관중(管中)은 고조선의 문피(文皮)가 산동반도의 끝에 있는 척산(斥山)*항구를 통해 들어오고 있음을 언급하였고, 이 당시 고조선의 유적인 요동반도 최남단에 있는 대련시의 강상(岡上)적석총에서는 중국의 남쪽지방에서 나오는 보배조개가 출토되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 일본서기에는 백제가 캄보디아인 부남(扶南)까지 교역을 한 기록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금관가야(金官加耶) 시조인 김수로왕의 왕비인 허왕후는 인도의 아유타(Ayodhya)에서 돌배(石船)를 타고 왔다고 하였으며 현재 그의 능 앞에는 인도에서 가져온 파사석탑이 남아있다. 대가야(大加耶)인 고령지역의 지산동 고분을 발굴한 결과, 그곳에서는 오키나와 등지에서 출토되는 보배조개로 만든 국자가 나왔다.

고구려의 뒤를 이은 발해는 무왕 때 수군을 동원하여 장문후장군으로 중국 당나라 산동반도의 등주를 공격하여 그곳을 다스리던 등주자사 위준을 죽인 적이 있었다. 그리고 당나라에 있던 고구려 유민인 이정기 장군은 산동지역을 다스리던 치청절도사로 그는 후일 제나라를 건국하여 당나라와 대치하였다. 그를 토벌하는데 공을 세운 신라인 장보고는 이 지역에 신라방, 신라소, 신라원 등 신라인들의 거점을 중국 내에 마련하고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완도의 청해진을 거점

으로 중국과 일본을 오가는 삼각무역을 독점하시피 하였다. 항주만 입구에 자리잡고 있는 관음보살의 성지인 보타도 또한 신라초와 함께 신라불공원이라는 사찰이 그 시원이 되고 있어 신라들의 행상활동과 매우 밀접하다.



〈그림 11〉 허왕후의 항해도



〈그림 12〉 파사석탑

즉 산동지역이 동이족(치우천왕)-백제-이정기(고구려)-장보고(신라)로 내려오는 긴 전통을 지닌 것과 함께 전라남도의 완도지역 또한 백제-장보고(신라)-진도의 삼별초(고려)-우수영의 이순신(조선)으로 이어지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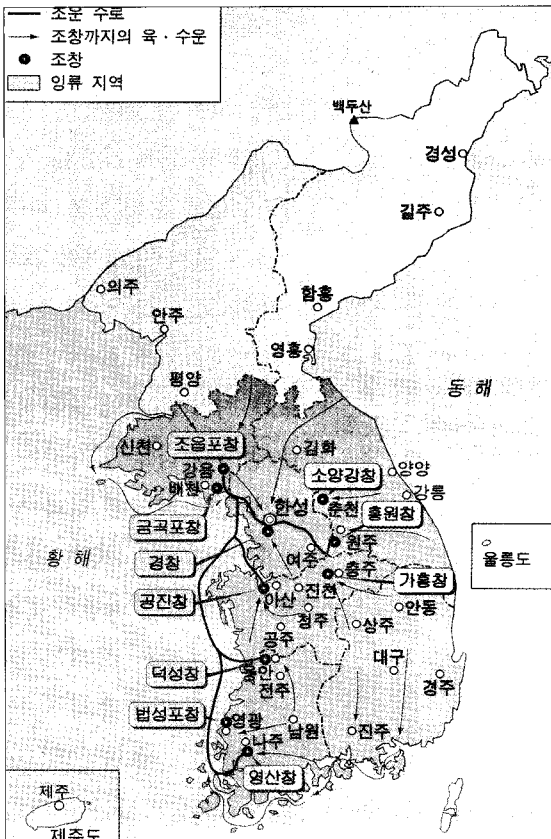
러한 역사의 이면에는 강과 바다를 이용해 동아시아를 주름잡았던 백제인들의 지혜가 뒷받침을 하고 있다.

6) 장보고의 법화원이 있는 산동성 영성사의 赤山포구

3. 하천 고유 역사의 필요성

현재 우리 학계는 근대화 이후 지금까지 하천을 단순한 관개시설의 물로만 취급하고 있으나 그곳에는 채집을 해서 먹던 시대에는 생존을 영위하던 곳이었으며, 그 후에는 험난하고 불편한 육로에 비해 매우 편리하여 조선시대까지도 교통로로 사용되어 세금으로 모은 것들을 강창(江倉)이나 해창(海倉)에 모아두었다가 바다와 강을 통해 도성의 경창(京倉)인 용산, 마포로 운반하였던 것이다.

즉 조선 초기에는 해창(海倉)으로 아산의 공진창(貢津倉), 용안의 덕성창(德成倉), 영광의 법성창(法聖倉), 나주의 영산창(榮山倉)이 있으며, 강창(江倉)으로 예성강의 강음(江陰) 조읍포창(助邑浦倉)과 배천 금곡포창(金谷浦倉), 북한강의 춘천 소양강창(昭陽江倉), 남한강의 원주 흥원창(興元倉)과 충주 가흥창(可興倉) 등 9개 조창이 있었다. 조선 후기에 진주의 가산창(駕山倉), 밀양의 삼랑창(三浪倉), 창원의 마산창



(그림 13) 조선시대의 강창과 해창의 조문

(馬山倉) 등 3개 조창이 설립되었다.

그 외에도 『삼국사기(三國史記)』 권제32, 잡지(雜志) 제 1, 제사(祭祀)조에 명산과 함께 물에 드리던 제사인 4독(四瀆)⁷⁾이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현재 아차산성 앞 한강인 한산하(漢山河)에 제사를 드렸던 용진사(龍津祠)⁸⁾이다. 이렇게 보면 하천이 신앙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번에 조사된 화순군 지석천(砥石川) 변에서도 호랑이바위, 용바위 등 신앙유적이 발견된 것도 마한 여래비리국(如來卑離國)이라는 소국의 왕궁을 중심으로 좌청룡, 우백호를 배치한 우리나라 전통적 신앙유적인 동시에 전통풍수의 단초를 볼 수 있는 증거이다.

고대의 국가 재정은 농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농업용수의 확보를 위해서 강과 하천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행주산성, 궁산토성, 아차산성, 풍납토성, 몽촌토성, 수석리토성 등 군사시설이 강가에 배치되어 있어 도강을 막아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과 하천 자체가 해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강과 하천은 신앙, 방어, 교통로, 농업용수 등 우리의 역사와 문화의 총체적인 결집체인 동시에 핵심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하천을 통한 미래의 과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문화의 질이 척도가 된다. 하

7) 3산 5악 이하 명산 대천에 지내는 제사는 대세(大祀), 중세(中祀), 소세(小祀)로 구분된다. 대사는 세 산에 지냈는데, 첫째 나력산(솔바위), 둘째 골화산(절아화굴), 셋째 할례산(대성굴)이었다. 중사는 오악(五岳)과 사진(四鎭)과 사해(四海)의 사독(四瀆)에 제사지내는 것을 말한다. 오악(五岳)은 동쪽의 토함산(대성굴), 남쪽의 지리산(청주), 서쪽의 계룡산(웅천주), 북쪽의 태백산(나이군), 중앙의 부악(공산)이라고도 한다. 압록군이다. 사진(四鎭)은 동쪽의 온말군(아곡집), 남쪽의 해치(리실제라고도 한다. 추화군), 서쪽의 가야암(마계산군), 북쪽의 웅곡(비열을군)이다. 사해(四海)는 동쪽의 아등(군오형변이라고도 한다. 퇴화군), 남쪽의 흥변(거침산군), 서쪽의 미릉(사산군), 북쪽의 비례(산실직군)이다. 사독(四瀆)은 동쪽의 토지(함포라고도 한다. 퇴화군), 남쪽의 황산(하심랑주), 서쪽의 웅천(해웅천주), 북쪽의 한산(해한산주)이다. 이 이외에 속리(삼년산군), 추심(대가야군), 삼조(을거서(서림군), 오서(역갈이군), 북형(산성대성군), 청해(진조읍)에도 중사를 지냈다

8) 광나루 아래쪽에 있다. 용에게 제사를 드리는 단이 있는데 봄, 가을에 나라에서 향축을 내리어 제사를 지냈는데 신라시대에는 이곳을 북독(北瀆)이라하여 중사를 지내고 조선조에는 하사를 지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11, 양주목, 시묘조, 한글학회, 『한국명어사전』, 1991)



(그림 14) 잠실도와 풍납, 몽촌, 삼성토성, 암사동토성 및 아차산성, 응봉산성

천을 이용한 사례를 보더라도 후진국은 무분별한 하천관리로 공해와 오염으로 인한 악취로 주민들이 접근하기를 기피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우리의 청계천, 안양천, 중랑천 등에서는 오염으로 인하여 악취가 나서 주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왔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강과 하천변을 잘 정비하여 국민들에게 좋은 경관과 정서적으로 쉴 수 있는 쉼터의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강변에 자리잡은 역사적 유산들을 잘 가꾸어 교육의 장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교통체증으로 시달리는 시민들을 위해 체증이 없는 강과 하천을 통한 사람들과 물자를 나르고 있다.

즉 강과 하천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나가 선진적 문명국으로 거듭나야 할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눈에 보이는 것에만 급급하여 왔는데 강과 하천도 이러한 형태로 개발하여 왔다. 그러나 강과 하천은 보이지 않는 더 많은 자원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청계천 개발의 예를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급속한 개발로 인하여 광통교 부근에 있던 신덕왕후(태조 이성계의 경처) 묘소인 정릉(현 정동교회 자리)을 현재의 미아리 부근으로 내쳐지면서 그곳에 쓰였던 석물들을 거꾸로 박아 넣었던 유적은 복원하였지만 정작 청계천의 대명사였던 수표교(水標橋)는 본래의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새로 만든 다리에게 밀려나고 말았다. 그리고 백제문화 연구회 한중섭 회장과 필자가 밝혀낸 태종이 경복궁을 짓기 위한 물자를 운반하기 위해 개기도감(開渠都監)을 설치해 청계천이 운하로 사용되었던 역사적 사실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좀 더 역사적 인식을 가졌더라면 수표교의 모조품이라도 만들어서 진정한 청계천의 옛 모습을 미래를 책임질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보여주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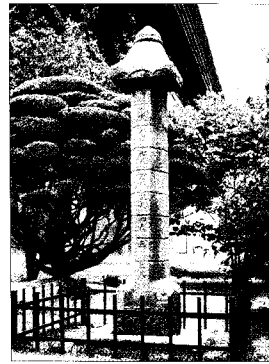
그리고 강남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심이었던 잠실과, 탄천과 양계천이 한강으로 합류하던 지점에 자리잡았던 송과나루⁹⁾와 삼전도나루 등이 존재하였건만 현재는 롯데월드가

9) 노량진의 버들나루와 함께 삼남으로 통하는 가장 큰 나루인 동시 가장 큰 시장의 송파장이 개설되어 있었다.

자리잡은 석촌호수라는 어린이들의 놀이터로만 알려져 있고 그것이 한강의 본류였다는 것을 알리는 그 어느 것도 존재하고 있지 못하며 역사학자들조차도 잡실이 섞이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있다. 우리는 오염으로 인한 악취로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아왔던 양재천, 안양천, 청계천 등을 정화시켜 성공적으로 시민들의 품으로 되돌려 주기는 하였으나 이와 아울러 그곳에 숨쉬고 있는 역사적인 유적들을 연계하여 개발을 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던져 주고 있다.

필자로서는 본인이 발견한 이번 화순지역의 예를 들어 모델을 제시해 보면 지석천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마한시대 여래비리국이라는 소국의 왕궁터, 남쪽에는 소도별읍과 고인

돌유적 등이 배치되어있고 능주 지역의 북쪽에는 백제시대의 치소가, 남쪽에는 백제시대의 비봉산성이 자리잡고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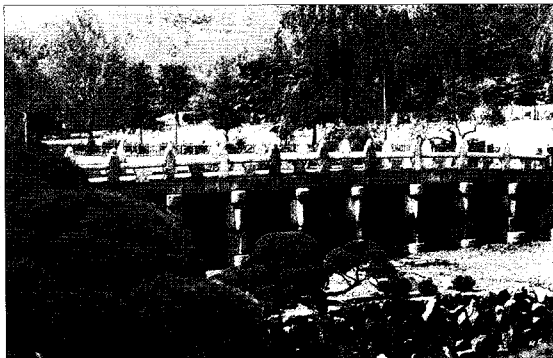


(그림 16) 수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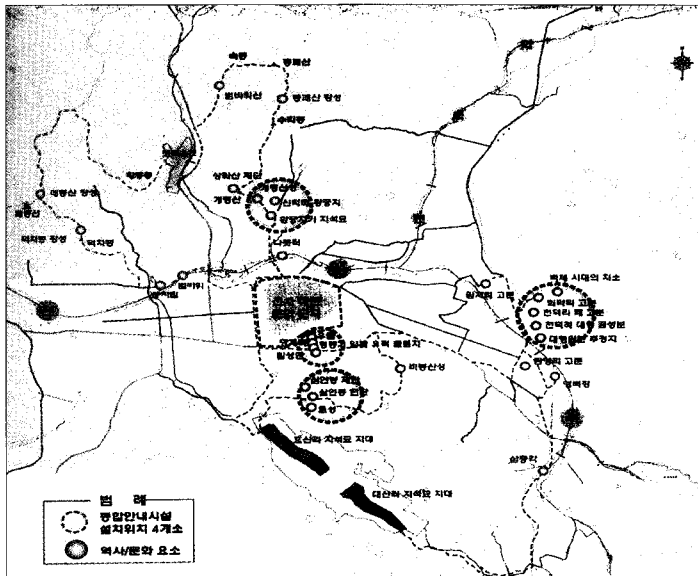
통일신라시대,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는 현재의 능주가 개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광주라는 거대한 도시와 인접한 이곳을 이러한 입장에서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고 훌륭한 자연의 경관을 가져 주어 내리는 날이나 꽃이 피는 날에 갈대밭에서 물새들이

노니는 전경에 취해 연인들뿐만 아니라 현대도 시인묵객들이 찾아 자연과 역사를 노래할 수 있는 두들강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운주사, 쌍봉사, 나주 반남고분군, 화순적벽 등 인접한 유적들과 도곡온천, 골프장 등 휴식과 오락시설까지 두루 갖춘 환경, 레저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 등을 고루 갖춘 총체적인 개발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림 15) 장충단공원에 남아있는 수표교



(그림 17) 화순 지석천 변의 유적 배치 개념도